

청문회 정국으로...내일 김진욱·20일 한정애·25일 박범계

김진욱,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주식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 등 논란...‘팩트’ 폭력 사태로 기소

여야가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열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

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차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공개질의’를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더구나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

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며 송곳 검증에 예고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한 후보자는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6억7000만원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전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2억36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과 효율적 처리 등 주요 환경정책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이



김진욱



한정애



박범계

뤄낼 책임자”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 인사여서 환경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환경부 장관 자질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25일에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지명된 만큼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준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목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야당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전 서구의 2억8500만원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임차권, 본인 명의 예금 2억4205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5억6699만원 등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총 12억634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우상호 “박영선, 속히 출마 의사 밝혀라”

“朴 출마 여부 기사만 한 달 보름...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발표 4탄 ‘2030그린서울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선 경쟁자로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출마를 결심했다면 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달라”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공약 4탄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업 개선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한다, 안 한다는 기사만 한 달 보름 이상 이어진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며 “(박 장관은)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약 경쟁이 이뤄진다면 아름답고 좋은 경쟁, 경선을 함께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출마선언문을 읽어보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싶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은 없고, 서울시장을 해봤으니 적임자라는 정도의 출마선언에 실망했다”라고 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12월 초까지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다가 시장(선거)으로 돌아왔고, 오세훈 전 시장도 시장선거 안 나오겠다고 하다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것은 서울시민을 모두 하는 행위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너무 콘텐츠 없이 도전하는 거

안인가 하는 판단을 지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야권 후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박영선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된다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본다. 나경원과 오세훈의 경선이 더 맥빠진 경선이 될 것”이라며 “야권의 흥행 요소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등장으로 보여진 주목도이지, 당으로 본다면 민주당 경선이 훨씬 더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더불어 “마지막에 가보면 우상호, 나경원, 안철수 3파전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후보는 조건부 출마라는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정치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정당이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없다”라며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아 경선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있다. 피해가 좀 크다. 경선 일정을 확정해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식 출마 선언이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을 전제로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바 있으나 안 대표와의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린 결정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중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제 앞에 대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며 “이번에 1년 보궐선거 시장으로 당선되면 내용을 공약은 전부 5년짜리이고 1년이 아니다. 1년간 마무리할 수 있는 공약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시민들이 동의 해주신다면 5년간은 시장으로서 저를 자리매김 할 거고, 그 기간에는 정말 대통령직 도전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아침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격려 전화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격려 전화를 주셨더라”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조건부 출마를 언급하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총정에서 한 결단이었었고 야권 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 제안이었지만, 그에 앞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조건부 출마라고 이름이 붙어 일각에서 출마할 것이면 분명히



하지 무슨 조건을 다는냐는 비판도 있었다. 가급적 단일화된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게 승리의 바탕이 된단 생각에 제안했던 것”이라며 “지난 열흘간 국민의당 반응이나 안철수 대표 반응을 보면 사전 단일화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당시 제안하고 그날 바로 통화를 했고 (만날) 날짜와 시간도 정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통합 논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자 (안 대표 쪽) 연락이 와서 이런 상태에서 만나는 게 의미 있겠냐는 문자를 한 통 받았고 저도 잘 알겠다고 답했다. 그걸로 마무리됐고 더 이상의 시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